

인자(The Son of Man) B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유대교적 배경에서는 혁명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데까지 확장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재충전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2 : 27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 : 28 이렇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눅 6:5 ; 마 12:8)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의 고양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도 된다고 하는것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 : 12

인자는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인자의 신인적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인적 속성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셨으면서도, 메시아라는 말보다는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기를 즐기셨습니다.

이사야 9 :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에서 메시아의 인성을 말해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신성을 말해 주는 말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메시아보다는 인자의 명칭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약 600 년간을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 : 28
